

여성학 입문 : 포스트모던 시대의 여성

제1강 여성의 시선으로 세상보기 -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성

강사 : 박남희

◆ 여성학에 관하여

※ 학습목표

여성학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 고찰해본다.

▲ 여성의 시선으로 세상보기

흔히 여성학은 남녀 성차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학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시선으로 세상보기 라고 하고 싶다. 남성적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기존의 편협함은 우리 삶의 본질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여성의 시선으로만 보자는 것도 남성들이 범했던 문제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름에 지워진 규정, 기존의 사회 문화적 관념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인간이라는 총체적인 시선에서 삶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작업이 여성학 이 추구하는 바이다. 인간다움과 여성다움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여성학은 여성과 남성의 차별 이라는 것을 차이 의 시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며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한 성적인 소외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문이다. 여성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학 이라는 학문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사회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규정이 없고,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최종목표인 것이다. 시소놀이는 양쪽의 무게가 비슷해야 끊임없는 놀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놀이라는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도 편중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사회를 들여다보면 남성에게 무게가 가중되었고 상대적인 여성의 무게는 가볍다. 이런 무게에 대한 조절이 여성학의 작업인 것이다.

▲ 여성학

여성학이 여성에 대한 담론을 넘어서 학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학의 탄생과 발전 필요성과 역사적 배경을 두루 살펴보아야 한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소외에 대한 항거는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시대 안에서 성적 소외에 아파하고 벗어나려고 했던 황진이와 있다. 그러나 문화현상이나 운동으로 이어져간 것이 아닌, 개인의 문제

였기 때문에 아쉽지만 학문의 시도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서양에서 출발한 여성학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사회와 연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안에서의 여성

현대 젊은 여성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그다지 차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다 사회로 나가는 순간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나 이전에는 가정이나 학교 등 사회 전반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더 심했다. 앞 세대의 여성들이 투쟁한 결과가 지금의 모습인 것이다. 이 결과를 잘 보존하고 누리며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 세기의 철학적 마인드는 포스트모더니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유 규정이 전체사회를 다 담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그때그때 고유한 시공간 문화 상황 속에서 되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현모양처, 슈퍼우먼 등 여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나갔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에 맞추는 여성이 아닌 만들어가는 여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다. 그러나 사회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스스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 여성학 포스트모던 시대의 요청

20세기가 되면서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나가고 과학이 매우 발전하게 된다. 미래를 주도할 산업기술로 5T 산업을 꼽는다.(5T : BT(Biology Technology), ET(Environment -), IT(Information -), NT(Nano -), ST(Space -))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산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학문에서는 문화와 더불어 여성학이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맞춰 살았던 여성은 틀이 사라지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여성학은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 거울 앞의 여성

여성학은 가장 먼저 여성이 자신을 발견하는데서 시작한다. 이전까지 여성은 남성이 마련해준 거울에 자신을 비춰봤기 때문에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다양한 거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여성은 여성에게 부여된 모든 것들을 회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성다움과 인간다움의 문제를 되묻기 시작하면서 여성은 스스로를 재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존에 알았던 규정되었던 여성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여성학이 출현하게 된다.

▲ 자유주의 사상의 등장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이라는 사상이 싹트면서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자유주의 사상이 탄생한다. 자유주의 사상이 싹트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신분사회에서는 왕권을 확립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물자도 필요하다. 그래서 식민지 정책을 펼치고 귀족을 내보낸다. 그러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귀족들은 용병을 사서 항해와 대리전을 시키고 용병들은 그 대가로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면서 신흥 부유층이 생겨난다. 이들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자 이제는 신분의 동등권을 법으로 보장받기를 원한다. 또한 경계와 높낮이가 없는 바다에서 생활한 자유에 대한 무의식적인 갈망도 컸을 것이다. 신진계급들은 자유와 평등을 얻으려고 한다. 서양의 자유는 투쟁의 역사다. 자유와 평

등을 얻기 위한 투쟁이 벌어진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존엄성을 인정받고 누리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 존엄성의 끝은 늘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들은 자신의 천부권을 주장했다. 자신들은 하늘이 존엄성을 준 특별한 존재이며 신의 아들로 자신들을 상정했다. 그래서 신화가 생겨나고 건국신화가 되고 지배권으로 바뀐다. 그런데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던 사람들도 신화를 다시 쓰기 위해 평등권을 하늘에 연결시킨다. 신 앞에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피로 물든 투쟁 끝에 자유와 평등개념을 얻어내며 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한다. 이제 인간은 하늘 앞에서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되었지만 이 때 평등한 인간은 남성들만이였다.

◆ 산업자본주의와 여성

▲ 산업자본주의의 발달과 여성

여성은 노예 장애인과 더불어 인간취급을 받지 못했다 여성들은 자유와 평등에서 소외되어 남성들의 부속품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여성에게도 자각능력이 있다 차별과 소외에 대한 불만은 여성들에게 누적되어갔다. 그러다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기존의 산업체계를 밖으로 끌어낸다. 가내수공업의 형태로 행해지던 것들이 밖으로 이전되면서 가정과 사회가 분리되기 시작한다. 남성이 일터로 나가면서 사회는 남자 가정은 여자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남성의 노동은 화폐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일로 여겨지고 여성의 가사노동과 출산 양육은 무가치하게 여겨졌다. 그러면서 두 부류의 여성이 등장한다.

▲ 부자 남편을 둔 여성

산업자본주의의 흐름을 타고 부를 가진 남편을 둔 여성은 노동자 계층의 여성들을 가정부나 가정교사로 들인다. 가사노동에서 자유로운 부유층 여성의 관심은 오직 남편의 관심을 끄는 일 자신과 집안을 꾸미는 일이다. 그래서 물건들을 사들이고 사치를 일삼는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남한테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나를 꾸미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여성들은 초상화를 그리고 미술품을 사들여 집안을 꾸민다. 예술가를 후원한다거나 파티를 연다든가 로맨스에 빠지는 것도 부유층 여성들의 일상이었다. 이때 상류층 여성들의 문학작품도 등장한다.

▲ 노동자계층 여성

노동자를 남편으로 둔 여성은 남편이 버는 것만 가지고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자본가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턱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 가정은 식구들이 모두 생계를 위해 노동에 나섰다. 아이들의 교육은 엄두도 못 냈다. 이 계층의 여성들은 여성으로서도 아닌 남성으로서도 아닌 그냥 살아갈 뿐이었다. 이런 빈부격차와 불합리가 마르크스라는 사상가와 공산주의를 탄생하게 하는 배경이 된다.

▲ 춘향이보다 행복한 향단이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며 두 유형의 여성들에게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부를 향유하던 여성과 그들을 위해 노동하던 여성들은 시간이 지나자 내면의 위상이 바뀌는 것이다. 부유층 여성들은 많은 것을 누리나 자기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사회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 계층 여성들은 남성들과 노동의 현장에 부딪히면서 사회와 그 변화

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헤겔의 주노 변증법

헤겔의 철학 개념 중 주노 변증법이라는 것이 있다. 주인과 노예가 있으면 보편적으로 주인은 잘 살고 노예는 못 사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주인인 춘향이와 종인 향단이가 있다고 하자. 향단이가 치마 펄럭이며 들로 나가 맛있게 익은 과일을 따다 주면 춘향이는 품위를 지키며 먹는다. 춘향이는 향단이가 선택한 것을 취하는 제한된 삶을 즐기는 것은 아닐까? 삶이라는 전체성을 놓고 봤을 때 일방적으로 받거나 누리기만 하는 사람은 단순한 한 방향의 존재로 전락한다. 결과만 판단하던 시대에서는 단순히 주인이 잘 살고 노예가 못 사는 것이었지만 삶이라는 것은 원인도 있고 과정도 있는 것이다. 새롭게 인식하는 사유로 보면 향단이의 삶도 어떻게 보면 춘향이의 삶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

▲ 삶에 의문을 갖게 되는 여성들

신흥 부르주아의 계급에 소속된 남성들은 돈 쓸 틈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의 부인을 통해 대리과시를 했다. 이 여성들은 허리를 조이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이런 과시욕을 충족시켜주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앵무새 인형 같은 존재였다. 남성의 사랑을 받는 데 인생을 건 반면 노동자계층의 여성은 생활이 너무 힘겨웠기에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양쪽 계층의 여성 다 주체적인 생각은 못하고 산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자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의문을 가지며 남성에게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다.

▲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착취

이 시대에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갖고 있는 고정관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성들은 속물이라는 것이다. 남성들의 대리만족을 위해 치장하고 여유를 즐겼던 여성들을 남성들은 본래 그런 속물적 존재로 치부한다. 또 하나는 여성이 이성이 부족한 감성적 동물이라는 것이다. 또 노동자계층의 여성들은 기계처럼 수단으로 부리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성적 착취를 하기도 한다.

◆ 계몽주의와 여성

※ 학습목표

기존의 여성관에 대해 알아보고 계몽주의 이후의 여성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 내재화된 여성

울스턴크래프트는 기존의 여성관에 대해 반기를 든다. 여성은 속물이나 감성적이기만 한 동물이 아니며 남성의 성적 대상일 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울스턴크래프트는 남성의 책임을 물으며 남녀의 사회적 역할이 바뀐다면 마찬가지로의 구도일 것이라고 한다. 즉 본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이 바뀐다면 여성은 대상적 차원이 아닌 남성과 대등한 하나의 주체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남성들에 의해서 갇힌 세계의 여성들에게 이것을 허물 수 있는 자체적인 힘은 없다. 남성적인 가치관에 의해 내재화된 여성은 스스로 그것을 부수고 나올 힘은 사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참고자료

18세기 영국의 작가 여권신장론자

울스턴크래프트 [Mary Wollstonecraft, 1759.4.27.~1797.9.10]

▲ 계몽주의 사상의 대두

자유주의는 평등과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면서 계몽주의와 맞물린다.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여성에게도 교육을 시도한다. 그러나 루소의 『에밀』에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교육은 여자는 여자답게 즉 조신해야 하며 가사 요리 바느질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성에 대한 교육 자체는 의미 있으나 여성은 여성답게 라는 교육의 내용이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답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 ‘여성답다’ 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성답다’ 는 것은 무엇인가 생물학적인 성과 관련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성(gender)과 동의어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질 성격 등이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사회에서 규정한다고 해서 ‘여성답다’ 라는 틀에 갇힐 이유는 없다. 여자는 ‘여자다워야’된다고들 한다. 이때 두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

첫째 <여성답다> 라는 것은 무엇이며,

둘째 <여성답다>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흔히 여성답다 는 것은 가정적이며 조신한 것을 뜻한다. 여성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관념들은 여성 자신의 관심이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닌 사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학에서 말하는 것은 성(sex)에서 여성성(gender)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태어날 때는 여성으로 태어났어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

▲ 변화를 위한 여성의 과제

남성적인 시각의 초기 여성교육을 비판하면서 여성학은 각 분야에서의 개혁을 촉구한다.

1) 교육

여성은 나르시시즘에 빠진 속물 남성보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존재 대상적 존재가 아니며 남성과 동등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2) 참정권 투표권

교육을 통해 여성이 자각했다고 해도 그것에서 끝나면 사회전반적인 것이 고쳐지지 않는다. 또한 정치의 문제는 따라서 여성의 참정권에 대한 문제가 등장한다.

3) 문화

참정권을 가진다고 해도 가정과 사회의 뿌리 깊은 문화는 여성 차별적이다 문화 자체까지 바뀌어야 한다.

4) 주체성

외부 조건인 교육 정치 문화가 바뀐다고 해도 여성 스스로의 의지가 발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허구로 끝나게 된다. 자신의 현실을 목도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자립심을 가진 주 . , 체적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 스스로 여성 을 만드는 주체성

여성이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서게 되면 우열관계에 있던 남녀가 동등해지며 주체와 주체의 인격적 만남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소통의 숨통이 트이고 상호 인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긴 세월 이어진 문화의 흔적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는 창조성이 필요하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한 가지 해결방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한다. 남성처럼 되는 것이 여성해방처럼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 혹은 남성을 배제하려는 극단적인 페미니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모습을 인정하고 그 다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성의 자리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 다시 여성성이란 ,

그렇다면 다시 여성성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돌아가 보자 여성성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제각기 다르다. 어느 한 가지 색으로 그것을 칠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여성성은 다르게 말하자면 나의 사람다움이다. 그래서 여성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성의 출산, 육아, 남성과의 관계로 제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주체성이 실현된다면 그 다음은 철학적인 문제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실현해나가는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여성으로서 나의 인간적인 삶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의 문제다. 여성의 자신의 성적 매력을 활용하는 여성도 있다. 또 도덕과 윤리를 구현하는 여성도 있으며 사회적 성취를 추구하는 여성도 있다. 어떤 성을 추구하는가 자유롭게 열린 각자의 길이다. 도전하는 자는 도전 받는 자보다 의욕적이고 생기 있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 게 참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억압받는 것만큼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여성문제들

▲ 포스트모던시대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사상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근저가 되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남성들에 한한 사상이었다. 그것이 여성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끼쳐 페미니즘을 불러일으키고 이어지며 누진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인 포스트모던시대에서 자유주의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19세기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인지 다르게 취급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전까지는 여성의 권위가 신장되어 남성과 동등해지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어떤 전제로 동등해질 것인가가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남성과 동등해진다는 것은 남성과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인 구조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차이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남녀차별처럼 같은 여성 안에서도 차별은 존재한다. 여성과 여성 사이에서의 차별도 다른 차이의 관계로 봐야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남성과 여성도 다른 관계로 풀어야 한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남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서로 인정하며 존중하고 상호보완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다.

▲ 여성의 본질과 비본질

남녀의 차이 서로의 고유성을 인정할 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여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여성의 특성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먼저 출산 육아의 문제다. 출산은 여성의 고유기능으로 여성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출산 육아의 문제와 병행된다. 이 문제를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교류하면서 보완할 수 있을까 또한 남성의 병역의무도 어떻게 이것을 여성들이 인정하며 서로의 평등을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지를 새롭게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외모 가꾸기 여성의 상품화 등이 여성의 본질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자유라는 프리즘에 놓고 볼 때 어떻게 비춰지는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단순히 차별이 아닌 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할 뿐이다.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 재생산되는 신화

- 자본주의 사회의 매스 미디어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보다 미디어와 상품을 통한 대화가 많으며 그, 것에서 파생하는 문제도 많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제한된 당사자들끼리의 대화지만 방송이나 광고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접할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주입되는 그것은 곧 교육이 된다. 학교 등의 교육현장과 상관없이 사회교육이 되는 것이다. 가부장적 문화 안에서 여성과 죄를 연결시키는 신화가 생산된 것처럼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신화가 재생산된다. 여성의 육체를 강조하며 성형 다이어트 등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TV, 광고의 무차별 폭격은 여성은 외모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또 다른 신화로 여성을 옥죄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 가중되는 여성에의 요구

아름다운 외모와 더불어 현대에서는 여성의 경제력이 요구된다. 또한 자녀들을 명문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으면 능력 없는 여자 취급을 받으며 재테크를 해서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암묵적으로 요구된다. 여성학이 여성의 집만 늘린다고 하는 불평이 나올 만큼 과거에 비해 신장된 여성의 권리는 자본주의 사회와 맞물려 오히려 여성에의 요구가 가중되고 있다.

▲ 따로 또 같이

현대에 부과되는 여성의 문제는 여성이라는 한쪽 성에만 지워지는 짐이 아니라 양성(兩性) 이 하나 되어 풀 문제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는 양성 모두 추구해야 할 건강에 대한 문제가 왜곡되어 나타난 것이다. 자녀교육도 마찬가지로 부모 중 하나가 책임에서 비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득권이 있는 남성은 제안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의 프리즘에 자신의 문제를 적용시켜 가정 학교 사회에 반사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자기 삶도 반듯하게 하고 자기가 속해져있는 공동체도 반듯하게 하고 나아가서 자기가 소속되어있는 국가 인류에게도 반듯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최근 페미니즘의 방향이다.

▲ 여성에 대한 여성의 소외

여성의 문제는 남녀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의 문제 중 하나는 여성에 대한 여성의 소외다. 한국의 여성은 자신의 자아실현과 해방을 위해 타인의 도움을 구한다. 그 때 제일 많이 도움을 구하는 대상은 어머니다. 희생하는 어머니에게 계속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다. 타인을 전제로 한 해방은 온전한 해방이 될 수 없다. 여성이 해방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여성을 억압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여성의 문제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제결혼상대로 팔려오다시피 하는 외국의 여성 외국인 매춘부의 문제는 한국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서 여성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문제는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세대 간의 여성문제 여성간의 빈부격차 학력차등 여성들 사이의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해결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학의 제일목표는 여성 개인이 자아와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방향 지을 것인가가 다음의 목표다.

▲ 여성의 문제 인류의 문제 ,

역사적으로 인류의 투쟁은 여성을 어느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여성의 문제는 국가의 존폐위기와 연결이 된다. 남성들이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경선을 지키는 것만이 국가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닐까? 여성의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여성에 국한되는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립 인류차원의 문제로 확장된다. 삶의 전체성에서 볼 때 이런 여성의 문제는 단순히 여성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 인류문화의 문제가 된다. 여성학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권리 의무 팽박 소외 이런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보고 삶의 문제를 보고 인류의 문제를 보느냐의 문제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작아 보이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와 맞물

리는 것이다.